

오피니언

진중권의 세상보기



두 얼굴의 박근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박근혜 후보는 이른바 '대통합'의 장정을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봉하마을을 찾아가 하반, 청계천의 '전태일 재단'을 찾아가기도 했다. 그리 진정성이 실리지 않은 행보라 가는 곳마다 잡음이 일기 했지만, 적어도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반대편을 향해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준 것만은 평가할 만하다.

로 밀려난 의원들 역시 측근 위주, 친박 일색의 선대위를 비판하며 캠프의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과거의 비대위원들까지 성명을 발표해 가며 그 흐름에 힘을 실었다. 한 마디로,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놓칠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러자 아예 선거의 전략을 바꾸기로 한 모양이다. 최근 박근혜 캠프는 노골적으로 수구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안으로는 쇄신이나 개혁의 과제를 내팽개치고 내부의 균열을 봉합하는 한편, 밖을 향해서는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공세를 퍼기 시작한 것이다.

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북속도서'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NLL이 '영토선'이라는 보수 세력의 주장은 외려 북한이 점령한 지역 전체를 그들의 영토로 인정해주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다. NLL은 사실 합의를 전제조건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NLL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는 군사분계선이 아니라는 북한의 주장은 '형식적으로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휴전 이후 수십 년간 그 선 아래는 남북이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게 사실이다. NLL 문제는 결국 이 '형식'과 '실질'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다. 이는 합리적이고 이성적 토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해 후보마저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결국 이 논쟁에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노무현 대통령이 사용했다는 표현에 대한 해석학적 시비뿐이다. 박 프에서는 이 말꼬리 잡기로 흔들리는 보수층을 다잡으려나보다. 과연 전략은 효험이 있었다. 최근 이북5도민 체육대회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폭언과 폭력을 퍼부은 그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NLL'이라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박근혜 캠프의 대통합의 행보는 결국 극단적인 이념적 편 가르기로 막을 내렸다. 진정으로 충격적인 것은,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던 친철한 근혜씨와, 그분을 반국가적 용공분자로 몰아가는 잔인한 근혜씨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이다. 섬뜩하지 않은가?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대선 캠프 핵심에 광주·전남 인물 없으니

18대 대통령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그룹에서 광주·전남 출신 정치권 인사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지역이 다시 번영으로 밀리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 선대위의 경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일부 친노 성향 지역 인사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지만 핵심 그룹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문 후보를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공약과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맨'들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이 포진해 있는 상황이다. 이정현 최고위원(국성)이 공보단장을 맡아 최전선에 나가 있고, 김광두 서강대 교수(광주)가 힘찬경제추진단장을, 이성현 전 의원(영광)이 조직 총괄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이정현 단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광주·전남지역을 활동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아 기대난이다. 대선 후보 핵심 그룹에 지역 출신 인사가 없다는 것은 지역 발전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다. 특히 광주·전남을 텃밭 내지,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안 후보 캠프에 이 지역 인사를 찾기 어렵다는 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 제시나 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역할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호남에 구애만 할 게 아니라 지역 출신 인사들을 대거 기용해 민심을 살피고, 지역 발전책을 내놓아야 한다. 호남 민심이 대선 고지를 향한 첫걸음이 아닌가.

나라사랑 칼럼



문대식

의병정신을 나라사랑 정신으로

반란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940여 차례나 외침을 받아왔고 그때마다 의병활동도 여러 차례 있었다.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 시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이 담나라 군대에 맞서 항쟁하였다. 또 고려시대에는 몽골군과 홍건적의 침입에 싸웠으며 조선조에서는 임진왜란, 정묘, 병자호란 때 항거하였고 한말에는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였다. 아마 우리나라는 의병의 발자국이 닿지 않은 산하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눈물과 피가 묻지 않은 땅은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아무런 대가나 명에 없이 심지어는 이들도 없이 나라를 위해 산화한 의병의 지고한 정신을 기리고 오늘에 되살려 현대를 살아가는 정신의 중심 좌표로 삼고자 광주 광산구에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의병의 날'을 제정하였다.

는 전국 비교 교전횟수 47.6%, 의병숫자는 60.1%가 참여하였으며 1000명 이상이 전사하고 180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호남의병들의 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겨 준 의병과 의병정신은 이름 모를 수많은 민초들의 목숨과 목숨이 모여서 지닌 나라사랑의 표상이다. '의병의 날'을 맞아 우리는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기리고, 나라의 소중함을 깨달아 나라사랑 마음가짐을 새로 다지는 뜻 깊은 날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라사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몸과 마음으로 국방 의무를 다하는 일, 물질이나 세금으로 기여하는 일, 산업 보급, 국위선양을 통한 보국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나라사랑 마음가짐'이 승고한 가치를 지닌다. 민족사를 통해 보더라도 '의병과 의병정신'이야말로 '나라사랑 마음가짐'의 극치임을 알 수 있다. 의병정신은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

종고칼럼



강상원

말에는 미래를 결정하는 힘이 있다

15일 후에 병을 수거해 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고맙습니다'라고 쓴 병 양의 밥에는 누런 누룩 곰팡이가 피어 구수한 냄새가 난 반면, '짜증나'라고 쓴 병에 든 밥에는 까만 곰팡이가 피어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이것은 생명이 없는 물 질에도 밥이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말에는 복을 부르는 힘이 있고, 말에는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힘이 있다. 또한 말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힘도, 죽이는 힘도 들어있다. 우리나라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선수 박지성의 자서전에는 자신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의 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박지성은 어려서부터 공을 잘 찼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그저 평범한 선수였다. 어떤 프로팀에

말은 하나뿐인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최고가 타락하면 최악이 된다. 성경에는 '너희 말을 항상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말이 있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여 음식의 부패를 막기도 하지만 음식에 간을 더해 맛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남을 성공시키는 말,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칭찬하는 말, 등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의미이다. 독사이다 보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말도 많이 하고 사는 편에 속한다. 항상 조심스러 노력하지만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후회와 반성을 하곤 한다. 내 방 벽에는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말해서는 안 될 때 말하지 말라 말해야 할 때 침묵해서도 안 되니 말해서는 안 될 때 말해도 안 된다. 입이 입을 그렇게만 하여라.'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다. 문을 나갈 때마다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이다. 내가 심은 말의 씨앗이 오늘도 어디선가 열매를 맺고 있을 것을 생각한다. 그 열매가 부디 생명의 열매이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좋은 말의 씨앗을 뿌리고 싶다. <새교회 담임목사>

보이스피싱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확인부터 하세요

"당신의 모든 금융거래정보가 해킹됐습니다. 현재 저축하고 있는 은행 예금을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옮겨주시십시오!" 내 휴대폰에 이런 문자메시지가 떴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며 행동할까. 이진 신중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아닌 금융거래정보 해킹이라는 말에 일단 대부분은 긴장을 하고 말 것이다. 일반 보이스피싱이냐 내가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 버리면 그만이지만 금융거래정보

해킹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일이므로 내가 망설이는 동안 해킹을 통해 내 금융자산을 도둑맞을 수도 있을 거라는 불안감을 갖기 때문이다. 요즘 이런 신중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는 것 같다. 필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나 가족들도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한다. '비밀번호와 카드번호가 해킹 됐다'는 누닷은 전화에 깜짝 놀라, 불러주는 계좌로 예금을 옮길 경우 이는 제대로 당하고 마는

폴이다. 더군다나 이 보이스 피싱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금융감독원이라거나 혹은 은행감독원 같은 기관으로 사칭까지 한다. 그러나 다 알다시피 금융원, 검찰, 경찰 같은 국가기관은 개인 금융자산 보호하는 이유로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 더군다나 본인의 확인은 물론, 통장의 인감증명서와 비밀번호 같은 너무나 기본적인 확인절차 없이 전화상으로 그런 걸 이제하라 마라 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아닌가. 이런 사기 전화를 받은 경우, 일절 응대

말은 하나뿐인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최고가 타락하면 최악이 된다. 성경에는 '너희 말을 항상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말이 있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여 음식의 부패를 막기도 하지만 음식에 간을 더해 맛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남을 성공시키는 말,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칭찬하는 말, 등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의미이다. 독사이다 보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말도 많이 하고 사는 편에 속한다. 항상 조심스러 노력하지만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후회와 반성을 하곤 한다. 내 방 벽에는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말해서는 안 될 때 말하지 말라 말해야 할 때 침묵해서도 안 되니 말해서는 안 될 때 말해도 안 된다. 입이 입을 그렇게만 하여라.'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다. 문을 나갈 때마다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이다. 내가 심은 말의 씨앗이 오늘도 어디선가 열매를 맺고 있을 것을 생각한다. 그 열매가 부디 생명의 열매이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좋은 말의 씨앗을 뿌리고 싶다. <새교회 담임목사>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빠른 일이며, 본인 외의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범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지급 정지된 금액은 법적으로 예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소송 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항상 이런 보이스피싱에 속거나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확인부터 하는 침착함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 ▲김기원·광주시 서구 세화동

無等鼓

골프에서 공인 기록으로 드라이버 샷을 가장 멀리 보낸 사람은 캐나다 출신 리엄 멀러이다. 그는 2001년 세계 장타 대회에서 티샷을 474야드 날려 우승을 거머쥐었고, 이 기록이 세계 최고 기록으로 남았다. 각종 기행(奇行)으로 유명한 존 멀러는 원조 장타자다. 메이저대회 우승 경력까지 있는 그는 미국PGA투어에서 8년 연속 장타왕을 차지할 정도로 공인된 슬러가다. 평균 281야드를 날려 여성 프로골퍼 가운데 최장타자인 미셸 위와 2003년에는 '장타 상대결'을 벌여 관심을 끌기도 했다. 올해 마스터스대회 우승을 차지한 비바 왓슨은 왼손 장타자로 427야드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국내 장타자의 대명사인 김대현은 2007년 하나투어대회에서 349야드의 날렸다. 초보 골퍼의 로망은 비거리라. 특히 남자 골퍼라면 드라이버 샷을 얼마나 멀리 보내느냐에 목숨을 걸 정도다. 이들에게 장타자들의 호쾌한 드라이버 샷은 골프를 하는 이유이자 도달해야 할

목표다.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시간을 드라이버 샷 연습에 치중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게. 미국 데이브 펠즈 골프연구소가 수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핸디캡 20인 골퍼의 드라이버 평균 거리는 183야드, 핸디캡 10인 골퍼는 214야드였다. 18홀(72타) 라운드당 할때 드라이버 샷은 고차 14번 한다. 골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5%에 불과하다. 반면 아이언샷은 22번(30.5%), 퍼팅은 36번(50%) 한다. '드라이버는 쇼, 퍼팅은 돈'이란 골퍼 격언이 빈말이 아니라 예기다. 비거리를 최대 20%까지 늘려준다는 '원자볼(Atomic Ball)'이 국감장에서 논란이 됐다. 골프공에 감마선을 쬐어 구심력과 탄성을 높인 공인데 원자력연구원이 홍보용으로 제작해 무료 배포한 것을 한 의원이 문제 삼았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들이 제일 좋아해 국회에 가장 많이 뿌렸더니 아이러니다. 비거리에 대한 욕심이 초보 골퍼와 다름없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원자볼(Atomic Ball)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신문주간 申培樂
편집국장 曹庚亮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행취재부 2200-621
편집부 2200-649
여론취재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